

사회



시험장 안팎에 '마스크' 수능 시험이 치러진 12일 광주 서구 전남고등학교 특별시험실에서 마스크를 쓴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종플루 의심 환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입실하고 있다. 오른쪽은 응원금지령 속에서 '수능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나온 후배 학생들이 수험생에게 따뜻한 녹차를 건네고 있다.



나름기자 mjna@kwangju.co.kr

# 수능 열기, 신종플루도 늘었다

## 분리 시험실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 큰 동요 없이 치러

### 나주 한 수험생 '발열' 구급차 대기 속 시험

### 감기 환자 "일반 시험실서 보겠다" 승강이

올 수능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한 '신종플루'도 수험생들의 뜨거운 열기만큼 막지 못했다. 이번 수능에는 예년과 다르게 각 시험장마다 신종플루 분리시험실이 설치되고, 수능 응원이 금지되기도 했지만 수험생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러냈다.

특히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하고, 올 6, 9월 모의고사보다 쉽게 출제된 가운데 올 모의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이룬 광주지역 학생들이 '실력 광우'의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이날 광주·전남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분리 시험실을 이용한 학생은 모두 205명으로, 각 분리 시험실로 통하는 출입구와 복도 등은 일반학생의 출입이 통제됐다.

교육 당국은 분리 시험실에 가슴기와 난방기, 마스크, 응급용품함 등을 비치해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일부 시험장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신종플루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각에 도착해 차분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일부는 "일반 시

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험 감독과 승강이를 벌였다.

전남고에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몸살 기운이 있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2차례나 응급관정을 받았다"면서 "다른 의심환자 4명과 시험을 보게 돼 불안하다, 시험실을 바꿔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나주 급성고 분리시험장에서는 수능을 치르던 A군(19)이 고열이 나 병원 구급차까지 대기시키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내리고 A군도 기존 장소에서 계속 시험을 보겠다는 뜻을 밝혀 병원행은 취소됐다.

시험시간에 늦은 수험생들이 군·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하는 일도 있었다.

육군 31사단은 헌병대 오토바이 3

대와 지휘차량을 동원해 수험생 37명을 실어 날랐고, 광주시 소방본부는 다리가 부러진 환자 등 3명을, 전남도 소방본부는 원거리 수험생 3명을 시험장까지 무사히 수송했다.

다소 이른감은 있지만 올 수능에서 광주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박연중 광주지역 고교 진학부장협의회장은 "지난 6, 9월 모의평가에서 광주지역 학생의 성적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이번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이 없는 한 지난 5년간 이어온 수능 전국 1위의 명성을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연중기자 lucky@kwangju.co.kr

# 못말리는 학생들 '마스크 응원'

## 자제령 속 시험장마다 피켓 들고 "선배님 짱"

신종플루도 수능 응원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 추운 날씨에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수능 시험장 앞은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교문 앞에서 기도하는 학부모, 따뜻한 음료와 함께 격려해 주는 교사와 재학생들까지

모두가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12일 오전 7시20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앞에서는 재학생들의 응원원이 펼쳐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전날 각 학교에 응원자제를 요청했지만, 후배들은 아침 일찍 삼삼오오 시

험장에 나와 선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1·2학년 학생들은 시험장에 입장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대박' '풀어라, 짱어라, 정답이다.' '선배님 짱' 등 각종 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쳤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 5·18때 살인 누명 옥살이 60대 29년 만에 무죄 선고

## 광주고법, 허위 자백 인정 "남은 여성 편안하게" 위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해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60대에 대해 법원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2일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80년 당시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재판장은 "그동안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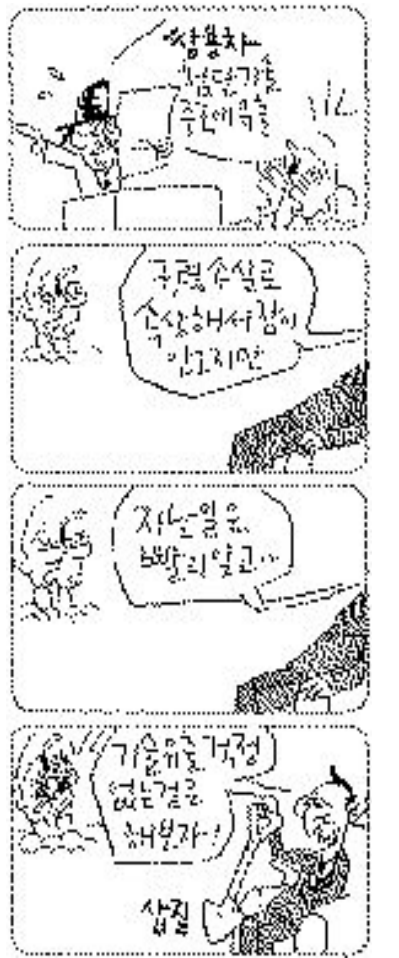
고생이 많으셨는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씨를 위로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큰절을 한 뒤 "30여년을 살인 누명을 쓰고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며 "7남매를 키우면서 따라다닌 살인자의 꼬리표를 떼게 해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5·18 당시 해남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불합격 광주 상무대 영창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영암군 신북면에서 전남대 1학년생 박모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이씨는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80년 6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11개월 가량 옥살이를 한 끝에 이듬해 4월 함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7952) 김장두



### 짜통 시계 팔아 4억 행거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속칭 '짜퐁' 명품시계를 판 황모(39)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합격 조사 중이다. 황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중국에서 버러 둔 시계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시계 1천여개를 진품으로 속여 팔아 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나주서 오늘 6·25 좌·우 희생자 합동위령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나주시 다도면 복지회관에서 '6·25 전쟁 다도 양민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6·25 당시 다도면 지역 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화

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계기로 군·경 및 빨치산 등에 희생된 유족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6·25 당시 다도면에서는 군인과 경찰에 의한 희생자가 176명, 빨치산과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자가 104명으로 모두 280명이 희생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아이고..."

12일 낮 화재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냉장고 보관고 근처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차량이 불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 보관창고에 불... 냉장고 100대 차량 1대 전소

12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양모(29)씨의 냉장고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냉장고 100대와 겔퍼 차량 1대가 전소돼 2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

### 출장 성매매 수사-가슴 졸이는 남성들

○경찰이 전남 동부지역의 출장 성매매 조직원 10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데 이어 이들의 통화내역을 조회 중이어서 성매매 남성들이 바짝 긴장.

○순천경찰은 12일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황모(32)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기사 김모(30)씨와 성매매 여성 장모(21)씨 등 9명을 입건.

○황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순천, 광양, 여수 등 유류차 주변에 '출장'이라고 적힌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경찰은 황씨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락한 남성이 4천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성매매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 /동부취재본부=김중훈기자 ejkim@

# 영 / 화 / 안 / 내

# 영화에이전시터

## 메가박스

1관	2012 (12사)	최고급관
2관	청담보살 (15사)	
3관	집행자 (18사)/굿모닝프리젠티 (전제)	
4관	청담보살 (15사)	
5관	2012 (12사)	
6관	청담보살 (15사)	
7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사)/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	
8관	2012 (12사)	
9관	2012 (12사)	

• 아프우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가 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런던외국사거리 ♥에메 1544-0600

##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제)	
2관	킬미 (18사)/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	
3관	2012 (12사)	
4관	2012 (12사)	
5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18사)/굿모닝프리젠티 (전제)	
6관	청담보살 (15사)	
7관	2012 (12사)	
8관	집행자 (18사)	
9관	청담보살 (15사)	
10관	2012 (12사)	

원도사랑 영화시영 • 메: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앞편)



1588-7941 상무원영점 평행-(11번 or 21번)→0번

## 하미시네마

1관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18사)	
2관	청담보살 (15사)	
3관	집행자 (18사)	
4관	킬미 (18사)	
5관	청담보살 (15사)	
6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굿모닝프리젠티 (전제)	
7관	2012 (12사)	
8관	2012 (12사)	
9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제)	
10관	2012 (12사)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80 • 하이 담구장



고려시영 고객상담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운 하미스포박스 ☎ 267-7777

## 씨너스전대

1관	집행자 (18사)/2012 (12사)	
2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청담보살 (15사)	
3관	2012 (12사)	
4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사)/킬미 (18사)	
5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제)	
6관	청담보살 (15사)	
7관	2012 (12사)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 제일시네마

1관	2012 (12사)	
2관	2012 (12사)	
3관	2012 (12사)	
4관	청담보살 (15사)	
5관	굿모닝프리젠티 (전제)	
6관	집행자 (18사)	
7관	펜트하우스코끼리 (18사)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초호남리역주자점 -구, 입암동 구역, 고려에 한함)



세무서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icinema.co.kr •  
충장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 ♥